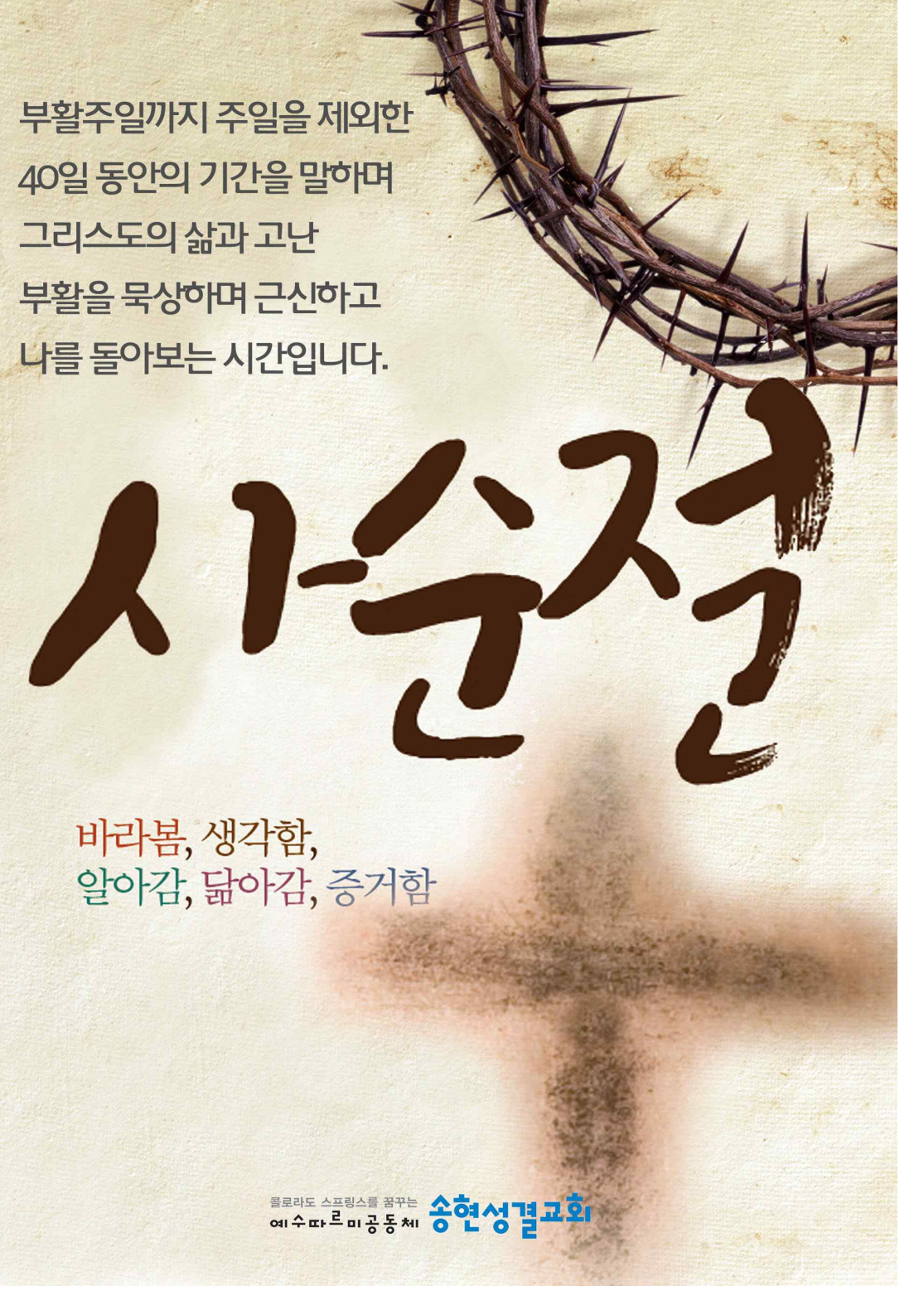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을 묵상하며 근신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바라봄, 생각함,
알아감, 닮아감, 증거함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꿈꾸는
예수따르미공동체
송현성결교회

초대의 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소중한 절기의 시작이며 계속해서 고난주간, 예수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예수의 계절〉에 속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의 계절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40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싸워 이긴 후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로 나아가 로뎀나무아래 앉아 40일 간의 고난의 날을 보냈던 날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돌비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생활의 강령을 받기 위하여 두차례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을 하게 된 날도 40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신 날이 모두 40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순절의 기간을 40일로 정한 근거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기간은 모두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축제와 오락을 피하고, 기도와 참회와 절제와 경건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보내야겠습니

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예수님을 위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를 묵상하며 사는 기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인지를 생각하면서 빚 갚는 자의 심정으로 보내는 기간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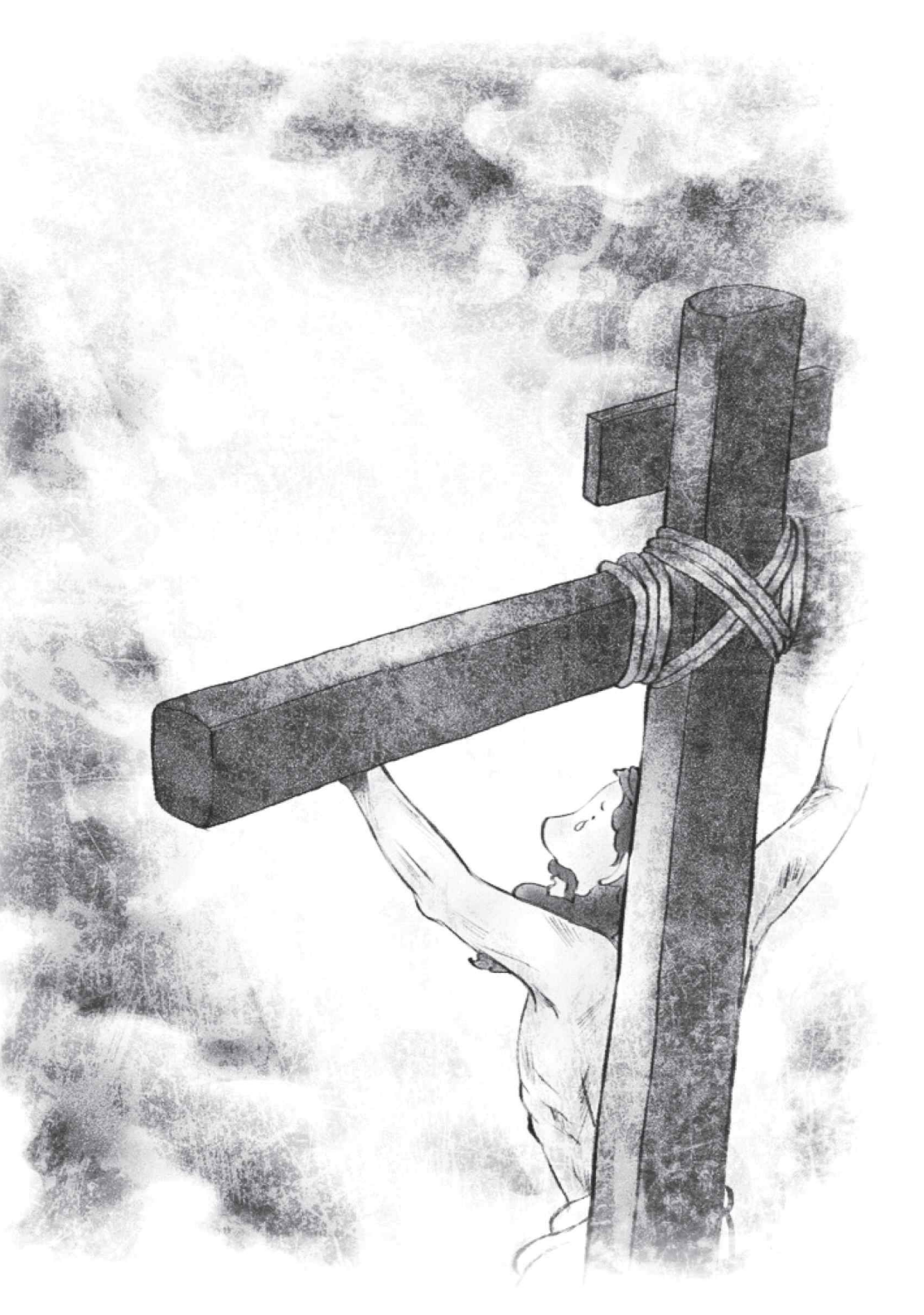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순절이 해마다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한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자신을 절제하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송현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사순절을 묵상하며...

담임목사 조 광 성 드림

송현성결교회



차 례

재의 수요일	3월 2일(수)	2
	3월 3일(목)	4
	3월 4일(금)	6
사순 1주	3월 7일(월)	8
	3월 8일(화)	10
	3월 9일(수)	12
	3월 10일(목)	14
	3월 11일(금)	16
사순 2주	3월 14일(월)	18
	3월 15일(화)	20
	3월 16일(수)	22
	3월 17일(목)	24
	3월 18일(금)	26
사순 3주	3월 21일(월)	28
	3월 22일(화)	30
	3월 23일(수)	32
	3월 24일(목)	34
	3월 25일(금)	36
사순 4주	3월 28일(월)	38
	3월 29일(화)	40
	3월 30일(수)	42
	3월 31일(목)	44
	4월 1일(금)	46
사순 5주	4월 4일(월)	48
	4월 5일(화)	50
	4월 6일(수)	52
	4월 7일(목)	54
	4월 8일(금)	56
고난주간	4월 11일(월)	58
	4월 12일(화)	60
	4월 13일(수)	62
	4월 14일(목)	64
	4월 15일(금)	66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사순절을 맞이하십시오!

이사야 43:18~21

2022년 사순절의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상처의 영향을 받아 마음에 분노와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복수심을 품고 복수의 노예가 되어 살기도 합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일 수밖에 없기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의 목록을 못 박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할 때 부탁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창 19:26).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과거를 떠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

습니다(빌 3:13-14).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흔들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우리의 미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거를 떠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과거를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듯이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용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그릇을 비울 때 새로운 축복이 찾아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새날을 주시고, 새달을 주시고, 새해를 주심으로 우리로 늘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43:19).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기대를 갖는다는 것이 2022년에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광야와 사막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디 거룩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가슴에는 희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송현성결교회

방향만 잘 정해져 있다면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1:28~30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신의 아픔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은 작아 보이고, 자신의 아픔은 커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순입니다. 지나간 큰 고통 보다 지금의 작은 고통이 이전의 고통 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큰 고통을 이겨 냈으니 이제는 어떤 고통도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때로 큰 고통보다 작은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을 건너온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 라고 했습니다. 거센 바람도, 황량한 사막도, 뜨거운 태양 볕도 아니었습니다. 신발 속의 작은 모래알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는 거센 바람과 싸우고, 황량한 사막을 건너면서 고독과 싸우고, 뜨거운 태양 볕 아래서 갈증과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은 신발 안에 들어온 작은 모래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신발 안의 모래알처럼 작은 것들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내면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삶이 어떤 것임을 알고도, 그렇게 살기가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속도를 내던 일도 속도를 조금 늦추어야 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몸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조금 쉬어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몸의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몸은 토해 내거나 설사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스스로 자신을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예민해도 안 되지만 너무 둔감해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적절한 균형입니다. 바이올린 현은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풀려 있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올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현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바이올린의 현을 잠시 풀어 놓은 것처럼, 긴장을 풀고 쉬어 주어야 합니다.

힘들면 조금 속도를 줄이셔도 됩니다. 조금 늦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속도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모셔가는 구급차에게는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앰뷸런스처럼 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이 항상 위기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만 잘 정해져 있다면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추어서도 안 됩니다. 바이올린의 현처럼 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연주자가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조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송현성결교회

보이지 않는 곳을 잘 가꾸는 지혜

에베소서 4:11~16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곳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을 잘 가꾸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마음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 설 때는 외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외모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링컨이 말하는 얼굴은 얼굴의 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분위기를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미소와 따뜻한 눈길이 담긴 얼굴은 마음을 잘 가꾼 사람의 열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하고, 요동하지 않는 얼굴의 침착함은 마음을 잘 가꾼 사람의 열매입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면을 잘 가꾸고 감정을 잘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호숫가에서 평화롭게 떠 있는 오리를 보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오리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위해 보이지 않는 두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할수록 집을 견고히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집을 완성하고 나면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초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를 소홀히 한 집은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진이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초삼아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브룩클린 다리에 얽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이스트 강 위로 아치형을 그리며 맨해튼과 브룩클린을 연결시켜 주는 건축물입니다. 1872년 6월, 이 다리 공사의 설계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수면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뉴욕 타워를 위해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에게 간단하게라도 해명하고 싶습니다. 지난겨울 토대를 쌓기 위해 수면 아래 쏟아 부은 석조와 콘크리트의 양이, 지금 눈에 보이는 브루클린 타워에 사용된 양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IVP, 7쪽) 브루클린 다리를 설계한 책임자와 건설 팀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즉 수면 아래서 다리의 기초를 닦기 위해 인내하며 위험한 작업을 감수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브루클린 다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성품을 잘 건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건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릇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중요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보이는 곳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늘 보이지 않는 곳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보이는 곳을 무시하지 않지만 늘 보이지 않는 곳을 더 잘 가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성전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도록 합시다. 또한 온 성도님들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두 기둥, 야긴(Jakin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과 보아스(Boaz :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 :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지켜 주실 것이다)와 같은 일꾼이 되시길 빕니다. 사랑합니다.

송현성결교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17~20

한 시인이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그 노래를 많이 베껴서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한 번밖에 보지 못했던 산 너머에 사는 젊은 여자에게도 보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그 여자가 사람을 통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믿어 주세요, 저는 당신이 제게 써 보내 주신 사랑의 노래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지금 곧 제 부모님을 뵈러 와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약혼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아가씨, 그것은 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모든 사람에게 불려지는 사랑의 노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다시 써서 보내왔습니다. "말로만 하는 위선자! 거짓말쟁이! 당신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시인을 저주할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희생하라고 애써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이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은 위선적이거나 말로만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변치 않는 헌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성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평안하십시오!]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쉽지만 그 사랑은 증명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부가 서로 "당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사랑은 증명되지 않은 사랑인 것입니다. 증명이 되어야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증명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사랑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서 희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간만 하더라도 아낍니다. 형제간은 더 아낍니다. 사랑이란 것은 이처럼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눈길, 한 번의 손길이 더욱 와 다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사랑이 참 그립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롬 14:8)라고 말씀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없는 자 가운데서 있게 되고 아픈 자 가운데서 치료받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참 기쁨과 행복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있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위나 명예가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세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달콤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 / 8 (화)

마음에 푸른 입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비둘기가 찾아온다

잠언 4:20~23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생명의 원천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가꾸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 그리고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활동 무대입니다. 또한 마귀도 활동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깨어 있어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가 좋은지, 어떤 마음의 상태가 힘든지를 스스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가장 오래갑니다. 몸으로 체득한 진리의 경험은 평생을 갑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할 때 마음이 불편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할 때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 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마음, 고요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깃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비둘기가 찾아온다.

중국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거나 미움이나 복수심을 품으면 좋지 않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행복하기란 어렵습

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의 얼굴이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용서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집을 떠난 행복이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것들이 찾아왔다가 우리에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찾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좋은 것이 우리 마음에 머물게 되면 더욱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됩니다. 오물을 담으면 냄새가 나고 파리가 찾아옵니다. 반면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축복(祝福)이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한 영원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저주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은 탁월한 영성 훈련입니다.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저주했던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용서하고, 축복해 보십시오. 축복하는 마음은 상대방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축복해 보십시오. 우리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행복감에 젖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복을 빌어 주는 우리 마음에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공동체입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줄 때 축복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성도님들 가정에 흘러넘치시길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송현성결교회

칭찬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에베소서 4:29~32

칭찬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칭찬은 존중과 긍정의 원리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칭찬을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개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칭찬을 통해 한 민족을,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힘을 얻습니다. 칭찬은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칭찬을 받으면 하고 있는 일을 더욱 잘하게 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포기하려고 했던 일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칭찬을 받으면 삶의 의욕이 솟구칩니다. 칭찬을 받으면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 데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칭찬하는 법을 배워 칭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나는 칭찬 한 마디면 두 달은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칭찬은 축복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축복이란 복을 빌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되도록, 형통하도록, 승리하도록 복을 빌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어원을 살펴보면 “좋은 말을 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 준다는 것은 칭찬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찬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칭찬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을 한다는 것은 칭찬하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관찰하는 중에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나, 상대방의 좋은 성품을 말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곧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잘하

는 것을 잘한다고 말해주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열정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열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남아 있는 옛 사람 때문입니다. 옛 사람은 부정적인 성향이요, 악을 행하려는 성향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관점이 부정적인 성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 칭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남을 축복하고 칭찬할 때 우리 마음에 행복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칭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한 점과 좋은 성품을 표현해 주고,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겸손의 덕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함으로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칭찬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칭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면 미숙한 것입니다. 또한 작은 칭찬에 집착함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칭찬에 잘못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는 목적은 안주하거나 퇴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칭찬의 목적은 더욱 발전하고, 더욱 성숙해 지기 위함입니다.

서로 복을 빌어 주는 축복공동체, 서로 칭찬해 주는 칭찬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잘하는 것이 눈에 띠면 즉각 칭찬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결과 보다 과정에 초점을 두고 칭찬하셨습니다. 성품과 태도에 초점을 두고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빕니다.

송현성결교회

말을 아끼는 지혜

잠언 18:20~21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낀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것의 가치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아주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몸을 아끼며 돌보는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합니다.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아끼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키웁니다.

하나님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풍성한 생명이 임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말씀은 낙심된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합니다. 말씀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말씀은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언어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말에서 생깁니다.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말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약 3:2)고 말합니다.

말을 아끼기 위해서는 말을 삼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쓴 지혜서인 잠언은 말을 아껴 사용할 것을 거듭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0-21).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대학자, 정이는 “말을 삼가 함으로써 그 덕을 기르고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그 몸을 기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덕을 기르게 됩니다. 중국의 현인은 “화는 입에서 나오는데, 입에는 입술이 있어 입술을 닫아야 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을 봉해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화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마음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눅 6:45)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지키기 전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합한 말을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익한 말, 상처를 주는 말, 화를 자초하는 말을 삼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유익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치유하는 말, 복을 불러 오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골 4:6).
말을 아끼면 마음에 고요함이 깃듭니다.
늘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송현성결교회

고요한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4:25~27

말씀 묵상을 통해 고요한 마음을 가꾸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영혼은 고요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고요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고요함을 배웁니다. 나무는 고요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고요히 철을 따라 꽃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립니다. 산도 고요합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반석도 고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잔잔한 호수에서 고요함을 배웁니다. 호수가 잔잔해지면 하늘이 임합니다. 호숫가에 있는 나무가 호수에 임하고, 밤의 달과 별이 호수에 임합니다. 푸른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이 호수에 임합니다. 고요해 지면 보입니다. 고요해지면 들립니다. 우리 마음을 잘 가꾸면 잔잔한 호수가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고요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섭섭함으로 괴로워합니다. 때로 미움과 복수심으로 마음이 요동칩니다.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때로 우리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냉정해집니다. 때로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때로 우리 마음은 남을 보고 비아냥대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가만 두면 좋지 않은 잡초들이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면 마음에는 사랑이 깃들고, 평화가 깃듭니다. 우리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격려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좋지 않은 잡초가 자라고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잡초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씨앗을 심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정원에는 정원사가 필요합니다.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정원사가 없다면 그 정원은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원사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가꾸면 소란하고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도 고요함이 마음에 깃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임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조용히 기다릴 때 임합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퍼레이드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요동치는 물결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요히 그런 생각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잡초처럼 거칠고, 좋지 않은 생각은 그냥 흘러 보내고, 좋은 생각을 붙잡고 그 좋은 생각에 머물 때 마음은 고요해 집니다. 우리 마음과 얼굴의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통해 늘 내면을 가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요함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의 고요함을 가꾸고, 그 고요함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송현성결교회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훈련

마태복음 6:5~8

사람은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움은 소외감입니다. 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느낌을 갖는 것이 소외감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정체를 잘 이해하고, 외로움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생애가 외로운 선지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낼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까마귀들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외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가장 혹독한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받는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거절당하는 상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대부분 거절당한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거절당했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거절당한 것이 아픈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거절당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잘 압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했습니다. 모세도 한 때 그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버림받고 거절당한 사람들의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외로움을 친구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축복으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잘 선용할 줄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거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홀로 있음은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막과 오아시스와 같은 차이입니다. 광야와 아름다운 동산과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느끼는 소외감이지만 홀로 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되면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깊은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 영혼은 고요해지고, 우리 영혼은 안식하게 됩니다. 고요할 때 보게 되고, 고요할 때 듣게 되고, 고요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하기 위해 홀로 있어야 합니다.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있으시면서 또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혼자 기도하셨습니다(막 1:35).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마 14:23). A. W. 토저의 말처럼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합니다. 큰 독수리는 홀로 납니다. 물론 사자가 필요할 때면 다른 사자들과 협력해서 사냥합니다. 하지만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하고, 큰 독수리는 홀로 납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독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지심으로 외로움을 축복의 시간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외롭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도, 예수님도 다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외로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홀로 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홀로 있음'을 통해 우리 영혼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영감과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홀로 있음을 통해 더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깊은 침묵 속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송현성결교회

예수님처럼 마음을 넓혀라!

빌립보서 2:5~11

영성훈련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왕상4:29)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은혜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좁은 사람이 마음을 넓힐 수는 없을까요?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를 숙명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후6:13)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성은 곧 그 마음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반응에 의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기때문입니다. 프레드 스미스(Fred Smith)는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까지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크기에 따라 자기와 닮은 사람만을 좋아하는 사람과 자기와 다른 사람까지도 좋아하는 사람으로 분별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 그저 다를 뿐입니다. 마음이 넓은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좋아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나갑니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다른 점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의 크기를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옹달샘에 돌을 던지면 쉽게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넓은 바다에 돌을 던지면 거의 파장이 일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에 물을 끓이면 쉽게 끓게 됩니다. 그러나 큰 그릇에 물을 담아 끓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마음의 크기는 누구 때문에 분노하며, 무엇 때문에 분노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빨리 분노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좁은 마음의 특성은 이기심과 자존심에 있지만 진정한 자존심은 넓은 마음에 속한 것이지, 결코 좁은 마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넓은 마음을 소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마음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충만을 받은 다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인종과 지역과 전통을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을 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행복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송현성결교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18:1~8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낙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낙심을 물리치시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낙심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거듭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하늘로 비상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무기는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 무기를 지금도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낙심이 마귀의 무기임을 알진대 우리는 낙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청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인의 한을 풀어 준 것은 열정적인 간구였습니다. 낙심을 극복하고, 절망을 물리치고 간절히 간구했던 이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열정은 우리를 탁월함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열정은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씨는 열정의 여인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우뚝 서기위해 날마다 열정을 가지고 연습했습니다. 물론 많은 위기도 있었고, 낙심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0년 동안 20만 시간을 연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보통 1만 시간을 자기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해서 실력을 연마하면 탁월함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수진씨는 20만 시간 동안을 실력을 연마하는 데 투자한 것입니다. 강수진씨가 강조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나는 '성공은 당신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실패'라는 놈은 한 번 붙으면 좀처럼 떠나지 않지만 '성공'이라는 놈은 늘 당신 곁을 떠날 준비를 한다. 끝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열정을 가져라.

우리 가슴에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됩니다.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맡겨진 일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 생을 불사르는 열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시간이 지나면 웃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을 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썰물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밀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희망찬 봄과 함께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하시길 빕니다.

고통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5:1~4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의 은혜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고통은 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빨리 거두어 주시지만 때로는 고통을 오래 머물게 하십니다. 고통을 오래 머물게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 인내해야 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은 기다림의 장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두운 감옥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고통은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꼭 닫아둔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줍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고통은 마음 문의 빗장을 힘차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태양과 멀리 떨어질수록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우리 인생은 차가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그의 품으로 이끄십니다. 체리 힐은 "고통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고통을 사용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실 때 고통에는 목적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연단을 받습니다. 진짜 금은 용광로의 불이 아무리 뜨겁고 혹독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면 불을 통과할 때도 잘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깊은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만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중보하도록 합시다.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썰물과 밀물이 함께 공존하듯이, 고통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통을 잘 견뎌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3 / 18 (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전도서 3:1~10

인생 여정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준 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생은 신비입니다. 어떤 것도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시련이 찾아 왔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조용히 읊조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너무 잘 될 때도 겸손히 옷깃을 여미면서 읊조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잘되는 일들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조금 초연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사건이 그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 아버지가 특별히 마련해 준 채색 옷을 입었을 때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때문에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생애에 불행처럼 여겼던 사건이 그를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사건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행복할 때 조금 숙연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역경이 찾아왔을 때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온 행복도, 역경도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랜터 왈슨 스미스가 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을 선물로 드립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다.

신하들은 밤새 모여 앉아 토론한 끝에 마침내 반지 하나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반지에 적힌 글귀를 읽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해했다.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 랜터 왈슨 스미스 -

우리에게 찾아온 성공과 불행은 머지않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며 안식하십시오.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송현성결교회

근심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 107:4~9

시편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중에 시편 107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07편 6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는 가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근심스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심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107편 24절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광풍과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바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이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광풍을 고요케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시 107:30).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의 깊은 바다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광풍과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광풍을 고요케 하시고, 바다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파도를 잔잔케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쇠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던 까닭에 지금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행 3:26).
예수님의 복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녀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요 1:12).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열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화를 받아 누리고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성심을 다해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함의 능력

예레미야 29:11~14

최**근에 읽은 글마다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김철호씨가 쓴 《정성》이란 책을 읽는 중에 가슴 뭉쿨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사업 실패 후에 숙대입구역 앞에서 리어카를 장만해 '꿀떡개비'라는 이름으로 호떡을 팔았는데 항상 정장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비록 호떡장사를 하지만 '난 소중한 존재'라는 자신의 존엄성을 정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재기의 기회가 되어 본죽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만들어 팔기 위해 아내와 함께 6개월을 수많은 시험을 거쳐 죽을 연구했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창립 8년만에 1,200여 개의 가맹점을 개설하고 해외에 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분의 성공 비결은 '정성'이었습니다. 이 분의 정성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책 속에 "간절히 원한다면 넘어져도 웃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분에게서 간절함을 배웠습니다.

'간절함'에 대해 가르쳐 준 책 한 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쓴《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쓴 이 교수님의 간증이 담긴 책입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은 딸이 실명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망막박리로 딸이 얼마 안 있어 실명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애절하게 했습니다. 하와이를 방문했던 주일에 딸은 아버지에게 원주민 교회에 함께 동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실명할지도 모르는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원주민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들이 부르는 애절한 찬송 소리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와 딸의 고통스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교수님은 처음으로 땅바

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민아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민아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저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이어령.「지성에서 영성으로」열림원. 122-123면)

하나님은 이교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딸이 서울에 수술을 받으러 나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놀랍게 망막박리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간절함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 생애를 돌이켜 보면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간절함에서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새가 지저귀듯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는 이유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를 드리는 중에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녀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

창세기 48:10~20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창 1:22).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창 1:28). 그들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복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은 번영의 복이요, 다스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번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으로 번역되었는데, 개역개정에는 그냥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덩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창 12:1-3).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것은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와 그 자손에게 대대로 성취됩니다.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도를 받기 위해 목숨을 내거는 모험을 합니다. 얍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를 놓지 않겠다고 강청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처음에는 무형이지만 그 복이 나중에는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그의 주인에게 베풀어 주신 큰 복을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

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창 24:35-36). 복을 사모하되 큰 복을 사모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큰 복이 자녀와 환경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큰 복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때에는 모든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는 순간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축복의 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 오히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 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받은 축복 기도의 영향력은 그의 전 생애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운 환경이 그의 생애를 더욱 복되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위협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라헬과 레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 간 까닭에 12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큰 복을 받아 열방을 복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큰 복을 받아 만민을 복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보고가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함께 기도로 복을 받고, 기도로 승리하도록 합시다. 기도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송현성결교회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시편 46:1~5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새벽에 누구를 만난 후에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새벽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성패(成敗)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시작한다면 세상의 소음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시작한다면 세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도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존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의 문제는 곧 공급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산소를 공급 받아야 합니다. 매일 물과 음식을 공급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사랑을 공급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 받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지혜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입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포도나무가 공급해 주는 풍성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히 4:16).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구하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 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열어주는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십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약 4:2)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많이 구하는 자요, 많이 받아 섬기는 자입니다. 기도하면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위로부터 임하실 능력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움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우리 함께 새벽집회에 참석해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는 마음의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시 57:8)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마태복음 7:7~11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 주시고, 그 문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마 7:7).

첫째,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임을 강조합니다(롬 5:1).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롬 1:17). 우리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둘째,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은혜'(Sola Gratia)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엡 2:8-9).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셋째,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그리스도'(Sola Christo)를 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았습니다(행 4:12).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요 14:6). 그런 까닭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요 16:23-2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4).

넷째,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다섯째,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고전 10:31).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3).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직 기도'란....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마 16:19).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눅 22:41-43).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기도를 통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송현성결교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마가복음 11:20~26

기도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도의 약속만큼 크고 놀라운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3).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눅 11:1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눅 11:2-4)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책으로만 수영을 배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

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움이란 일종의 실험과 같은 것입니다. 시도해 보고, 그 결과를 점검해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처음부터 너무 큰 기도를 드리기 보다는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울 때 조용히 하나님께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원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막 9:23). 믿음은 근육처럼 서서히 자랍니다. 믿음의 근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해집니다(롬 10:17). 믿음의 근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행할 때 믿음은 강해집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참음으로 받게 됩니다(히 6:15).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일곱 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6번째 기도할 때까지는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함으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21일 동안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룩한 절기인 사순절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기도를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송현성결교회

기도하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열왕기하 20:1~6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대화를 엿듣는 일이요, 거룩한 친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린 아이도 할 수 있지만 기도의 깊은 경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친밀한 사귐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때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드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하면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다면 연약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기도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만나가 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15년이나

생명을 연장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임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장애물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부흥을 불러 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 병이 낫고, 기도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케 됩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돕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귀는 기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무릎을 꿇는 것만 보아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 그 영적 권세 앞에서 좌절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간구의 영이십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기도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골방을 만들기 어려우면 방 한 구석에 작은 상 하나를 놓고 그곳을 기도의 성소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익숙한 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익숙한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진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절기인 사순절을 통하여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한 인물들은 거듭 기본을 다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는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밝은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기도로 승리하시길 빕니다.

송현성결교회

고난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28:10~15

사람들은 흔히 인생에 대해 '드라마 같다', '각본 없는 연극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삶에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큰 기쁨은 큰 어려움을 극복한 뒤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속한 복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평탄할 때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인생의 가장 곤고한 때에 경험합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어왔지만 직접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창28:16)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첫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장자의 복을 취함으로 에서의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신과도 같던 어머니를 떠나 혼자가 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야곱은 이 경험을 통해 일생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이 경험으로 그 험난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붙들 것이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줍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유업은 분명 육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 안의 영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신령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이 약속은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의 유업이 되어 나를 통해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평탄할 때는 실감되지 않았던 이 약속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유업으로 육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권세로 해결 받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셋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평탄할 때는 상상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라고 표현하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빌립보서 2:13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을 부여받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곤고하십니까.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는 사인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이 고난과 이 훈련이 끝난 뒤에는 내가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현성결교회

시련을 통해 견고해지는 지혜

시편 8편

하나님의 지혜는 자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연을 잘 관찰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급하지만 자연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조숙한 성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흔들어대며 참된 성장을 검증합니다. 자연과 동물 세계를 통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서광원씨는 그의 책에서 자연의 검증 시스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신록의 계절, 하루가 다르게 이쪽저쪽으로 뻗으며 있는 대로 잎사귀를 낸 나뭇가지들을 자연은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성장을 검증한다. 성급하게 웃자라지 않았는지 강력한 태풍으로 있는 대로 흔들어보고, 겨울이 되면 얼어 죽지 않는 단단함을 키웠는지 세찬 바람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물기 가득한 눈을 가지에 수복하게 쌓아 내려 눌러본다. 더 빨리, 더 많이 자랐다고 진짜 자란 것이 아님을 일깨우는 자연의 검증 시스템이다. (서광원, 『살아 있는 것들은 전략이 있다』. 김영사, 87-88쪽)

자연을 통해 배우는 검증 시스템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자라길 소원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성취하고, 빨리 높은 데로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원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은 무엇이든 빨리 성장 시키고, 많이 성장시키고 싶은 데서 시작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유혹을 부추기면서 성장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빨리 빨리'는 어느 날부터 우리 민족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빨리 자라서는 결코 안 될 것들이 빨리 자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가 찾아옵

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그 나름대로의 속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에 따라 성장하고, 그 속도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도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엄마의 자궁에서 10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해지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람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실 때 각 피조물이 성장하는 속도와 함께 존재해야 할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호박은 땅에 있어야 합니다. 호박 넝쿨이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호박이 커지게 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큰 호박은 땅에서 자라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호박이 높은 곳이 좋다고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위태롭게 됩니다. 낮은 곳에 임한 호박은 안전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선 호박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생각 없이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호박 넝쿨로부터 배운다.
쉬운 길 간다고 전봇대 철사 줄 잡고 올라간 호박 넝쿨
반달만큼 큰 호박 하나 달고 지금 떨고 있다
바람이 불까 소낙비 내릴까
-김교복, 《호박으로부터 배우다》 -

사람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안전합니다.

자신이 존재해야 할 위치를 망각할 때 위태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속도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지혜는 시련이 오기 전에 미리 속도와 위치를 점검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4 / 1 (금)

우리 영혼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25~29

말을 잘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 사람은 말만 잘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말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 말만 하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향해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성격에 따라 미래가 창조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색깔에 따라 미래의 컬러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잘 듣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며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마 13:14-15). 우리는 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 원하는 대로 봅니다. 또한 우리는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기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카운슬러를 찾아가는 이유는 카운슬러가 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카운슬러가 하는 일은 들어주는 일입니다. 잘 들어줌으로 분별하고, 잘 들어줌으로 격려하고, 잘 들어줌으로 코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청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할 때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들음은 받음입니다. 잘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들음은 얻음입니다. 잘 들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잘 들을 때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잘 들을 때 깨닫게 되고, 깨달을 때 돌이키게 되고 고침받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마 13:23). 잘 듣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기다림을 훈련해야 합니다. 서둘러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라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도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말씀 앞에 머물러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영혼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을 조금 아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들음은 받음입니다. 들음은 얻음입니다. 들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십시오. 들음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도록 하십시오. 들음을 통해 하늘에서 임하는 지혜를 얻도록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자신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3:1-7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 도움을 줄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폴 투르니에가 쓴 《인간 치유》라는 책입니다. 그는 한 의사의 말을 인용함으로 《인간 치유》라는 책을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없다. 다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죽일 뿐이다." 이 말은 거대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누구인들 자신 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병들게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적이 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우리의 삶을 통찰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심히 우울했던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우울한 생각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보다 스스로 나쁜 생각, 부정적 생각, 불신앙적 생각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존귀하게 볼 수도 있고 마귀의 속임수를 따라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거의 모든 죄에서 용서 받았다고 믿고 과거를 떠날 수도 있고, 마귀의 속임수를 따라 여전히 죄와 죄책감 속에 살면서 과거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 받아 과거를 떠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마귀의 속임수를 따라 살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자기 자신 외에 상처 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포로수용소에서 군인들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의지였습니다. 어떤 사건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의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선택을 했고, 모든 사건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선택하면 얼마든지 덜 상처를 받고, 또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과거의 상처를 저주 아래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상처가 진주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삶의 예술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엘리에너 루스벨트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 생각,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좋은 생각에 머물 수 있도록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십시오. 부디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영적 안내자를 찾아가십시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십시오. 상담자를 찾아 가십시오.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자를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스스로에게 적이 되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지혜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사시길 빕니다.

송현성결교회

상처를 진주로 변화시키십시오

이사야 30:23~26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나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면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란 우리 삶의 산소와 같아서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상처 때문에 무시당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그 상처에 고름이 생기고, 심해지면 그 주위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몸의 상처처럼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해 둘 때 마음의 상처는 독이 됩니다. 자신의 상처와 독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진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상처라면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처라면 대면해야 합니다. 상처 받지 않고, 상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배신의 상처, 거절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상처 투성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를 진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룩한 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상처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힐데가르트는 "자아 완성의 기술은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것은 예술입니다. 여인들이 좋아하는 값진 진주는 조개의 상처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주를 통해 상처가 진주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셀름 그륀은 "내가 상처를 받은 그곳에는 나의 보물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고통이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고 경멸하고, 아파하지 않는 사람을 어찌 인격적으로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를 저주 아래 두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가져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상처는 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상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훌륭한 고전을 읽어 보십시오. 작가들 대부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 받은 것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치유를 받으십시오. 상처를 진주로 변화시키십시오.

뿌리를 깊이 내리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바람이 불 때 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바람이 불 때 뿌리가 약한 나무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더욱 견고히 서게 됩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가뭄이 찾아왔을 때 물을 얻기 위해 깊이 뿌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물이 많을 때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어 물이 부족할 때 나무는 생존을 위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은 땅 속의 샘에서 물을 빨아올리게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바람이 심히 불었을 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이 뿌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이철환씨는 그의 책 「반성문」에서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우리를 흔드는 이유다."- 이철환 -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부른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6-7)

나무의 미래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를 보면 나무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뿌리의 깊이와 넓이가 나무의 높이와 넓이를 결정합니다. 뿌리는 지탱하고 저장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가 견고할 때 나무는 어떤 어려움에도 잘 견뎌냅니다. 뿌리는 공급하기 전에 저장합니다. 겨울나무는 겨울 동안에 뿌리를 돌봅니다. 봄이 오면 새 싹과 새 가지가 태어나도록 돕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나무는 뿌리에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추운 겨울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 동안 나무는 밖의 활동을 줄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돌봅니다. 나무에게 있어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나무의 뿌리 속에 새 싹, 새 가지, 아름다운 꽃,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무의 미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의 미래는 밝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게 됩니다(시 1:2-3).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넘쳐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너무 낙심치 마십시오.
오히려 바람을 통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십시오. 뿌리를 깊이 내리면 시련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잘 견디고 나면 머지않은 날, 뿌리 깊은 나무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찬 뿌리 깊은 나무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 온 성도가 서로 서로의 뿌리를 연결하도록 합시다. 그때 우리 교회는 더욱 견고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송현성결교회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4:5~10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읽었던 책 중의 하나가 천로역정입니다.

천로역정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존 번연]은 천로역정에서 기독도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 말합니다.

기독도가 다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분별'(Discretion), '경건'(Piety), '자비'(Charity), 그리고 '신중'(Prudence)이라는 사람들이 기독도와 함께 산 아래로 같이 내려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나누며 언덕의 경사진 곳까지 왔다. 그때 기독도가 말했다. "이 산은 오를 때도 힘이 들었지요. 여기서 보니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군요."

신중이 말했다.

"맞아요. 누구라도 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 산을 내려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도는 아주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한두 번인가 발을 헛딛기도 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산 아래로 도착해서, 기독도의 소중한 친구들이 그에게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그리고 건포도 한 송이를 주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기독도는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존 번연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 가르쳐주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겸손의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겸손의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죄를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성품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고통스런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죄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교만이라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만이란 "본질적인 악이며 극도로 악한 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교만이라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 음흉하고 무서운 죄이다."고 말했습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가볍게 생각할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교만이라는 죄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약 4:6)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잠 16:18)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잠 15:33)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겸손을 추구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을 마귀의 손길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먼저 높이시기 전에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 감사하십시오. 겸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겸손을 통해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겸손을 통해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을 통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시련의 골짜기는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머지않아 좋은 날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송현성결교회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욥기 23:8~10

우리 인생의 여정에 불같은 시련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랄프 탈리버는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욥의 생애에 찾아왔던 시련은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순식간에 상실했던 욥은 고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잘 견디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을 순금처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을 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순금처럼 빛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견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욥이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통과 탄식 중에 외쳤던 신앙 고백은 고난 받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욥은 하나님이 그의 고난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던 욥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절망의 언덕에서 믿음을 품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망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소망은 고통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필립 얀시는 고난의 문제를 가장 심도있게 다룬 영성 작가입니다.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영적 스승들을《그들이 나를 살렸네》라는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존 던입니다. 존 던은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중에 설교를 하고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존 던은 “고통은 변화될 수 있고 심지어 보상받을 수 있다. 외견상 안 좋은 일이 때론 큰 유익을 낳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립 얀시는 존 던의 생애를 조명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제련의 용광로를 통해 순금 같은 신자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 (필립 얀시, 『그들이 나를 살렸네』, 포이에마, 397쪽)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빛을 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시켜 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순금처럼 빛나게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재료로 삼아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통이 고통을 치료합니다.” 그런 까닭에 고통은 신비롭습니다. 이문재 시인의 글을 보면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 아플수록 종소리는 더 멀리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종소리는 종의 아픔의 정도에 따라 가까이 혹은 멀리 멀리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종은 풀무 속에 만들어집니다. 또한 종은 아픔을 통해 아름다운 종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견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송현성결교회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지혜

빌립보서 4:4~7

사람은 누구나 염려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도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집착하게 되면 염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염려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염려란 말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목을 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염려가 지나치면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염려는 마음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염려는 건강을 해칩니다. 누군가 "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염려하면 병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염려는 삶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염려는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염려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 곁에 가면 염려가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염려하면 자녀들은 불안해합니다. 반면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가 염려하지 않고 참착하게 대처하면 자녀는 안심하게 됩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품게 되면 염려가 잉태되고, 염려를 통해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생각의 씨앗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

여야 합니다. 염려는 현재가 아닌 주로 과거와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사건을 미리 끌어 당겨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날만 염려하지 않으면 염려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날은 '어제와 내일'입니다. 즉 '과거와 미래'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훈련을 한다면 염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인간의 실상을 아시고, 염려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마 6:27)고 물으셨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 6:30)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를 키우지 말고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우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시킬 때 염려를 물리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롬 12:2).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염려를 관심으로 바꾸고, 관심을 기도로 승화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빌 4:7).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비신앙적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송현성결교회

우리의 약함, 주님의 능력

고린도후서 11:23~30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약함, 주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함이 멸시를 당하지만 천국 백성에게는 연약함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는 연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깨뜨려 연약하게 만드심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약한 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 만든 문제입니다. 강한 자, 빠른 자들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와 빠른 자가 성공하고 득세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강한 자와 빠른 자들이 만들어 낸 성공이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강한 자와 빠른 자보다 약한 자와 느린 자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헨리 나우웬은 "사람은 강할 때 성공한다. 반면에 우리가 연약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보다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우리의 문제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이 많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강해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이 약해지면 겸손해집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

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끔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강한 자는 약하게, 빠른 자는 느리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은 한 때 강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가 강할 때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깨뜨려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의 연약함을 늘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주는 역설적인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나무를 관찰해 보십시오. 연약한 가지 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 끝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끝에 순이 돋고, 바로 그 순에 꽃이 핍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약할 때 도움이 찾아옵니다. 약할 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약할 때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약할 때 연합하게 됩니다. 연약함은 부드러움을 낳습니다. 연약할 때 유연해집니다. 연약할 때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시고, 고통을 통해 온유한 성품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약함을 잘 가꾸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으시길 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송현성결교회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우는 지혜

여호수아 24:14~18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요 1:12).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롬 3:28).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도 아니요, 감정이나 충동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시다(살전 2:13).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눅 1:45).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람이기에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키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려움을 정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을 향해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대부분의 두려움은 문제를 과대평가할 때 생깁니다. 두려움을 향해 기도로 선포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별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시면 문제는 작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 기적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기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문제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를 기회로

보고, 문제를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 보면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시편 91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시 91:2).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시 91:4).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시 91:11). 환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시 91:15).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용맹을 발하게 됩니다(단 11:32).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믿음을 통해 장애물은 극복 되고, 큰 산은 평지가 됩니다(슥 4:7).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강해집니다(롬 10:17).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 1:9)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고 선포하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히 12:2).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됩니다.

사순절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지난 이후에는 더욱 더 크고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속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송현성결교회

4 / 14 (목)

인생에는 가끔 썰물의 때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6:9~13

기본이란 좋은 자세와 같습니다. 기본이란 기초입니다. 집으로 말하면 주초와 같은 것입니다. 주초는 보이지 않지만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주초가 든든하면 건물을 얼마든지 높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주초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본을 잘 확립한 사람은 주초를 든든히 놓은 집과 같아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초가 든든한 집은 지진이 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가끔 썰물의 때가 찾아옵니다. 썰물의 때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썰물의 때, 관계의 썰물의 때, 사업의 썰물의 때가 찾아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썰물의 때는 빠져나가는 때입니다. 썰물의 때를 잘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둔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썰물의 때를 잘 넘깁니다. 썰물의 때를 잘 넘기는 길은 거듭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을 떠나 편법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어려울 때 거듭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말씀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일곱 집사님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만날 때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기초를 점검하고, 거듭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빈스 롬바르디는 "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코치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거듭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를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뿌리와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집을 건축할 때 놓아야 할 주초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보다 탁월한 기도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핵심이요,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원리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늘 새롭습니다. 쉽게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반복할수록 더욱 깊은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문장도, 어떤 좋은 책도, 어떤 좋은 영화도, 어떤 좋은 드라마도 익숙해지면 싫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반복해서 읽고,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의 매일 주기도문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한 채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깊은 뜻을 알고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더욱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 기본으로 돌아가 기도와 말씀에 힘쓴다면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라기보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의 특권입니다. 부디 기도로 승리하시길 빕니다.

송현성결교회

고통의 십자가에 임한 부활의 영광

히브리서 12:1~3

부활의 영광은 고통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의 경험은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최악의 경험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씨는 "최고의 순간은 때론 최악의 순간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순간이라고 느꼈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 보면 바로 최악의 순간 때문에 최고의 순간이 임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지만 고통은 환희의 전주곡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고, 고통은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 있음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고통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무디어지면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각을 상실하면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마음의 감각이 무뎌지면 감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 때문에 우리는 부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린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강렬하게 임합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죽은 몸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연약한 몸을, 병든 몸을, 깨어진 인생을 맡길 때 부활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 때문에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순간이 때론 최악의 순간을 통해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역사하시길 기도드립니다.